김범수 "카카오 5년간 5000억 투자 일자리 2만개 이상 만든다"

김부겸 총리와 간담회 개최
'청년희망온' 시즌2 파트너십
전문인력 양성·스타트업 투자

카카오가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9일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희망온(ON)' 프로젝트 시즌2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을 계기로 '카카오 공동체(카카오그룹)'는 향후 5년간 직접 채용 방식으로 1만명을 고용한다. 연평균 2000명 수준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투자, 고용 지원 등을 통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카카오는 현재 사원 교육 목적으로 조성 중인 'A.I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 개방해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2000명씩 총 6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길러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개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해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카카오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청년고용응원 멤버십'도 맺었다. 이를 토대로 A.I 캠퍼스의 청년취업자 교육,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방안에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김 총리는 이날 카카오의 청년희망온 프로젝트 참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생 경영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카카오가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의 '먹튀' 논란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김 총리는 "카카오 신화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라며 "카카오의 청년희망온 참여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만 2만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은 물론 제2, 제3의 카카오가 나오리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포용적 성장을 더 고민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플랫폼 기업 중 상생경영의 모범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재작년 카카오 10주년을 맞아 시즌2를 선언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며 "이 자리도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창업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IT 인재들의 창업 지원, 혁신가·창업가 양성에 개인적으로도 힘을 보태겠다"며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신나게 만들 수 있도록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채용 역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9일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C&D로 K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허브 도전

〈연계·개발〉

대학·기업 오픈랩, 지역 성장엔진 켜다

4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실·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성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확장

'R&D(연구·개발)를 넘어 C&D(연계·개발:Connect&Development)로.'

경북대학교가 산학협력단, 대학 연구실, 지역 기업, 지역 혁신기관들로 구성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통해 'K바이오·헬스 허브'에 도전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을 '기술의 산실'에서 발전한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이다. 개별 연구실이 아니라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주도 하에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이 사업화하도록 돕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에 예산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1~2년 내에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술을 우선 선정해 빠른 성과를 만들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2020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작년 본사업에도 포함됐다. 박최규 수의학과 교수와 지역 기업 엠모니터, 디바바이오가 협력하는 '차세대 분자진단기술 오픈랩', 장용민 의학과 교수가 주도하는 '의약화학 오픈랩'을 비롯해 바이오·헬스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6개 대학·기업 오픈랩이 가동되고 있다.

△신재호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코스맥스, 아소, 한국콜마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박춘욱 연구산학처 교수는 안전융합기술원과 'IoT(사물인터넷) 기반 상하수도시설 스마트 모니터링' △전만식 전자공학부 교수는 티디아이와 '나노바이오포트로닉스' △박순용(조현민) 전자공학부 교수는 아이엠과 '지능형 팔레트 로봇' 오픈랩을 열었다.

사업화 주제는 주민들과 지역의 현안인 질병, 노화, 시설물 관리 등 메디시티와 스마트시티에서 잡았다. 연구자들이 보유한 기술은 수요기업을 만나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 조영제 기술을 개발해 국내 중견기업에 4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의약화학 오픈랩이 대표적이다. 활성산소종을 제거함으로써 심근손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테라노시스(진단+치료) 물질 개발을 목표로 세운 의약화학 오픈랩은 또 다른 국내 중소기업과는 항암제 및 뇌졸중 치료제 개발에도 협력했다.



특히 시판 중인 MRI 조영제 가운데 항염증 등 질병 특이적인 적응증을 가진 제품이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방식의 조영제 개발에 도전했다. 염증 조기 진단이 가능한 MRI 조영제를 실용화함으로써 MRI 조영과 비조영 뇌질환영상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것. 오픈랩 연구자들은 고리형 가돌리늄 간조영제의 염증 표적 조영 증강·유지 기능이 우수한 특성을 발견하고 기술을 발굴해 이전계약까지 마쳤다. 연구자들은 분자 특이적 저분자 MRI 조영제 기술이전과 사업화도 추진한다.

피부마이크로바이옴 오픈랩은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사업화 성과로 연결하고 있다. 벌노랑이 발효추출물의 수용성 제제화 노하우를 지역 기업인 아소에 이전하는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코스맥스와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공동 연구를 펼치고 있다. 한국콜마와는 두피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코호트 분석과 활용 연구를 해 왔다. 연구자들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두피와 장내 미생물 군집과 두피 상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차세대 분자진단기술 개발·상용화 오픈랩은 20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한 차세대 램프(LAMP·등온증폭법)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엠모니터에 사람 감염병 분자진단, 디바바이오에 동물 감염병 분자진단 기술을 각각 이전하고 상용화를 돕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3각 연구집적단지는 바이에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140여 개 혁신기업과 3만8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산학협력 기반 혁신을 통해 첨단 의료도시로 성장하고, 미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는 지역대학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면서 "대학과 기업·혁신기관들의 공조를 통해 대구의 전략산업인 의료·헬스케어 기반을 키우고 혁신기업과 일자리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AI가 스트레스 측정 해결책 제시

ETRI '스트레스 관리 플랫폼'
개인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

AI(인공지능)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측정, 분석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해 AI로 스트레스 상태를 분석한 후,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기반 스트레스 관리 플랫폼(웰마인드)'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기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는 맥파, 심전도, 뇌파, 피부전도도, 피부 온도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수집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다양해 정확히 측정, 분석하기 어렵다. 앱 형태의 '웰 마인드' 플랫폼은 웨어러블 기기뿐 아니라, 센서와 연동해 온도, 습도, 소음, 미세먼지, 조명 등 근무환경 분석과 근무시간, 업무 일정 등 작업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장 내 스트레스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한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근로자의 스트레스 상태를 판단할 수 있고, 실시간 직무 일정을 모니터링해 업무 일정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법도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선호도에 따라 차 마시기, 음악 듣기, 스트레칭 하기, 명상 등 효과적인 솔루션도 알려준다.

연구팀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VR(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완료했으며, 연구원 내 리빙랩을 구축해 스트레스 측정과 솔루션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윤대섭 ETRI 인지·교통ICT연구실장은 "AI 분석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적화하고, 국내외 기업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TRI 연구진이 생체신호를 측정한 데이터를 AI 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해 스트레스 상태와 해소법을 제공하는 앱 형태의 '웰마인드'를 개발하고 있다. ETRI 제공

IITP "위성통신·AI·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 미래인재 육성"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기자간담회 열어
"올해 R&D 예산 첫 1조 돌파
6G 기술 확보·국제 공동연구"



전성배 IITP 원장이 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IITP 제공

정부가 6G·우주개발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2024년부터 8년간 총 9400억원 규모의 저궤도 군집위성 통신시스템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기획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화함으로써 6G 시대 초공간 통신을 위한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성배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놓치면 참담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6G 기술 확보와 표준화, 국제 공동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6G에서는 위성·우주를 아우르는 초공간 통신이 중요해지는 만큼 지상망만 구축하고 위성통신 체계를 못 갖추면 반쪽 경쟁력만 가질 수 있다는 게 전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5G에서 기지국 기술력을 쌓아 기업들이 성장과 수출성과를 냈다면 6G에서는 저궤도 군집위성 시스템으로 기회를 만들겠다. 위성기술, 저궤도 통신, 우주인터넷에 투자하고, 우주개발을 뒷받침하는 ICT 플랫폼과 SW(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IITP의 올해 R&D 예산은 총 1조618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1854억원 늘어난 1조5810억원으로, 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기반조성·사업화에 투자한다.

6G, AI(인공지능), 자율주행, 홀로그램, 블록체인, PIM(프로세스 인 메모리) 반도체 등 중장기, 중·대형 신규 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전략이다.

전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대응이 중요한 화두이고, ICT R&D를 통한 사회문제와 국가 현안 해결의 중요성도 커졌다. 또 작년에 선정된 국가필수 전략기술 중 사이버보안, 우주·양자, AI, 반도체 등 절반 이상이 ICT와 관련돼 있다"면서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네트워크, 우주, 탄소중립, 양자, 지능형반도체, 사이버 보안, 국민체감형 ICT 융합기술 등 10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혁신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전략분야 신규사업·과제 기획도 강화한다. 탄소중립도시, 메타버스 융복합, 5G 인프라 기반 도시 플랫폼, 디지털 3차원 공간영상 미디어, 전파 기반 소재부품장비 등 중장기·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규로 추진한다.

전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ICT산업 공급망과 관련해 소재, 장비, 서비스를 포함한 ICT 사업구조 전체를 조감하고 정례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관련 이슈 발생 시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인재와 SW 전문인재 양성도 늘린다. 올해 메타버스융합대학원을 2곳 신규 선정하고, 대학ICT연구센터와 AI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 대상기관을 각각 6개, 5개 새로 뽑는다. AI혁신허브에 100억원, AI대학원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해 산업 맞춤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기업과 공조한 기업멤버십 SW캠프를 신규로 추진해 600명을 양성하고, 교육기관과 협력한 캠퍼스SW아카데미를 4곳 새로 개소한다. ICT혁신인재4.0 사업도 53억원을 들여 총 31곳을 지원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신규 750명을 포함해 1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SW마에스트로는 연수생을 기존 15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해 최고급 SW인재를 육성한다.

R&D 성과가 시장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과 기술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R&D혁신 바우처 사업에 543억원을 지원,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SW 기술경쟁력과 핵심 SW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K-SW 기술 개발사업'을 55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전략SW 품목인 AI, VR·AR(가상·증강현실),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등이 대상이다.

전 원장은 "R&D와 인재양성 성과가 실제 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 개선, 기업과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웹케시, 삼성그룹 출신 김홍기 부회장 선임

성장동력 강화·신사업 추진
"혁신 서비스·책임 경영할 것"



웹케시그룹이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신사업 추진을 위해 삼성그룹 출신 김홍기(사진) 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그룹 부회장이면서 비즈플레이 대표를 맡는다.

김 부회장은 1986년 삼성전자 입사 후 30여 년 이상 삼성그룹에 몸담은 '삼성맨'이다. 과거 삼성신재무, 삼성전자 글로벌ERP(전사적자원관리), 삼성그룹 내 보험, 제조, 건설 같은 주요 관계사 ERP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SAP사용자협회(KSUG)를 출범시켜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내 ERP 이용자들의 혁신과 소통을 주도했다.

웹케시그룹은 김 부회장 취임과 함께 그룹 경영전략 추진에 힘을 더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제고해 B2B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회장은 "웹케시그룹은 국내 B2B 핀테크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면서 또 다른 도전과 가능성에 직면한 만큼 혁신적인 서비스와 책임 경영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MSS의 모든기능을 추가설치없이 완벽하게
클라우드 통합메일보안솔루션
MSS MCS
CLOUD SERVICE
AI기술 기반의 최신 기술로
안전한 기업메일 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ysOne